

#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 전략변화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안승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화의 실질적 의미는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생산보다는 초국적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이다. 미국, EU, 일본의 초국적기업들은 국제분업체제의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생산기지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구도에는 초국적기업들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선진국들은 자본의 초국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형은 지역통합과 동시에 세계화를 추진하는 초국적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국적기업들은 투자유치국에서 가장 이익이 많고 성장잠재력이 큰 통신이나 담배와 같은 산업부문에 대해서 인수·합병 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이나 개도국들은 초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첫째 정관개정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인수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인수때 기존 경영진 또는 종업원에게 거액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피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경영진이나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 1. 서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무역질서가 수립되었고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산되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규제완화나 민영화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초국적기업의 무차별적인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투자유치국에서 가장 이익이 많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특히

통신이나 담배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산업부문에 대해서 초국적기업의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점유율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기업부문이 초국적기업들에 지배되는 경우 국내시장이 장악될 수 있으며 초국적기업들의 초과이윤 유출로 국제수지균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다수의 국가들에서 생산거점과 판매거점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은 이익이 획득될 수 있는 생산기지와 시장이 있으면 전세계 어느 곳이든 진출한다. 초국적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정부 또는 지역적 규제에 영향력을 최소화 하면서 거대자본과 기술우위를 기반으로 생산과 판매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즉, 초국적기업들은 독점적인 초과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해외투자과 시장진출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화에 따라 변화된 국제정치경제 구조속에서 초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시장진출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세계화의 국제정치적 구조를 선진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써 설명한다. 둘째,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적 요인을 설명한다. 셋째,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업다각화와 초국적 인수·합병에 따른 자본집중의 문제를 논의한다. 넷째,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의 사례를 통해 최근의 추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II. 세계화의 국제정치경제적 구조

국제정치경제질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다. 첫째, 신중상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전개는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능력과 전략에 따라 가능했으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었다. 또한 자유주의적 질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반 또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즉, 강력한 군사력, 국제통화로서의 달러, 압도적 기술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패권은 미국의 초국적기업의 확장을 위한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조성했다는 것이다(Gilpin, 1987). 그러나 패권국의 과도한 해외투자와 체제유지비용의 부담은 미국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게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과 1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약화된 패권국으로 인해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다자간무역협상에서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할 의지와 능력이 약화되어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으로 상호의존론에 따르면 전후 미국의 패권은 실질적으로 쇠퇴했으며 따라서 세계자본주의체제에는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줄 지

도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가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개별국가들이 복합적 상호의존의 맥락에서 협력을 모색했기 때문이다(Keohane, 1984). 즉, 패권국이 쇠퇴함에 따라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공공재를 집단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요컨대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재의 공급에 따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으로 신그람시주의에 따르면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있어서 생산과 교환이 국제화되면서 초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기관,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s)이 형성되고 있다(Gill and Law, 1988: 65). 이러한 역사적 블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자본이동과 시장개방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패권적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패권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 따라 국제정치경제체제는 패권적 질서에 놓여 있기도 하고 비패권적 질서에 놓여 있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의 세계질서의 속성은 국가-시민사회 관계수준에 뿐만 아니라 생산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그람시주의에 의하면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 생산이라는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수준이 일방적으로 다른 수준을 규정하지는 않으며 세 개의 수준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세계화가 국제정치경제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고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및 시장진출에 어떠한 조건을 조성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차대전 이후 1950년대의 기간동안 미국은 무역부문에 있어서의 GATT와 금융부문에 있어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를 양대 축으로 하여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이끌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막대한 경제원조와 냉전체제에서의 군사비 부담으로 미국의 경제적 잉여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성이 노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고정환율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통화체제의 와해와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신용팽창과 경기침체가 초래되었다.

1985년 이후 미국은 가중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저달러 정책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부문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압력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협상이었고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목적이었다(Garten, 1995: 53).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의 핵심협상분야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분야인 농산물, 담배 지적소유권, 서비스산업이었다.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은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아시아신흥공업국 그리고 블록화되어 있는 유럽에 집중되었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수지흑자와 첨단기술은 미국의 우위를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수입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의 수입규제조치와 컴퓨터부품, 담배,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의 일본시장개방과 관세인하압력을 가하였다. 이와 아울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엔화의 평가절상과 수출지향에서 벗어나 내수지향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서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달러화에 대한 환율인상을 단행했다(안승국 외, 1999, 14).

미국은 유럽에 대해 1984년 이후 무역수지적자 기조로 반전된 이후 86년에는 적자규모가 250억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유럽은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무역마찰<sup>1)</sup>이 심화되었다. 미국은 유럽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에 책임을 지고 내수확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은 이에 반발하며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원인은 미국의 국제경쟁력 상실과 미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강했으나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서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서독도 자국통화를 절상했고 내수지향으로의 전환압력을 받았다. 또한 미국은 이른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입개방압력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이 대상이 된 것은 80년대 중반들어와 선진국들이 GNP성장률이 2-3%에 불과할 때 10%내외의 성장률과 무역수지흑자기조가 나타나면 서부터였다(이상환, 1995: 40-41).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8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원유가 안정과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 이후 미국의 저달러정책을 계기로 일본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에 기인된 것이었다. 또한 이들국가들의 성장배경은 섬유, 신발, 조선, 전자, 자동차부문에 있어서 선진국의 산업이전과 밀접히 연관된다. 미국은 아시아신흥공업국에 대해 다양한 보복조치와 수입개방압력을 가했으며 이들의 경제규모확대를 명분으로 세계무역에 있어서 책임분담을 강조하였다. 압력의 형태는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 관세율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외환, 자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압력이었다. 이러한 압력은 다자간 협상 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sup>2)</sup>의 적용과 같은 쌍무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

- 1) 미국과 EC와의 무역마찰분야는 농산물 이외에 철강, 항공기, 기계, 섬유 등 다양했다.
- 2) 이러한 법으로서는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외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보복조치로서 USTR(미국통상대표부)의 조사 및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제한 해당국에 대해 무역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철회할 수 있는 통상법 제301조;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이 공정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 있다고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판정하거나 미국내 산업설립이 지연된다고 USITC에 의해 판정되었을 경우 통상적인 관세에 부가해서 반덤핑관세(반덤핑관세의 액수는 수출에서의 가격과 미국시장내에서의 가격과 일치)를 부과 할 수 있는 반덤핑법; 수출국이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 품목에 대해 상무성과 USITC가

졌다. 결과적으로 신흥공업국들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도쿄라운드이후 미국은 신라운드개최를 1983년에 제의했지만 1986년 9월에야 개최될 수 있었다. 신라운드의 제의와 개최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신라운드 개최에 대한 반대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80년대에 들어와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보호주의가 만연되었고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1982년 GATT의 정기각료회의에서는 GATT의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분쟁해결절차, 산업구조조정, 서비스, 위조상품, 첨단기술제품 등의 거의 모든 무역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제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신라운드 개최보다는 GATT 각료회의를 진행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GATT 각료회의가 GATT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신분야보다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개선이 주요 협상의제가 되지만 신라운드는 첨단산업기술을 포함한 지적소유권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세계무역구도의 재편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안승국, 1998: 16).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도상국과 미·일간의 대립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EC의 경우 신라운드개최에 대해 선진국으로서 동의할 수 있었지만 EC에게 특히 중요한 농산물분야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해 신라운드 개최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에 대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되어 직접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자 미국과의 쌍무협상보다는 다자간무역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1984년 제40차 GATT 총회에서 신라운드개최에 동의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다자간무역협상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획득한다. 그러나 EC와 일본도 자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라운드에 대한 선진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GATT의 능력을 고려할 때 보호무역주의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신분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지적소유권 및 서비스분야는 선진국들의 독점상품으로서 다자간무역협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신라운드개최를 반대했으나 85년 제41차 GATT 총회에서 조건부로 수락하였다. 아시아신흥공업국들도 미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1985년 GATT 특별총회에서 신라운드개최에 동의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집중적인 압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신라운드개최를 미국과 함께 제의하면서도 협상과정에서는 신흥공업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이중적

---

관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동일한 액수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 관세법이 있다.

입장을 취했다. 이와같이 신라운드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86년 9월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시에서 신라운드가 개최되어 1994년 마라케쉬각료회의까지 7년에 걸쳐 협상이 타결되었고 GATT의 뒤를 이어 WTO가 95년 1월 1일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가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기조로 정책을 전환하고 첨단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였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투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켜야 했다.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고 금리인상압력을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Spero, 1989: 119). 따라서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WTO체제하에서 국가간 실물 및 금융자산의 자유방입적 거래질서를 구축했던 것이다(Haass and Litan, 1998: 2). 그러나 WTO는 무역과 관련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기업들이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게 되었다. MAI는 첫째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화, 용역, 투자, 기업 등에 제한없는 시장접근을 허용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투자의 자유화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해외 직접투자의 증대를 통해 경쟁적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WTO가 규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양자간투자협정에서 규정되는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를 인정한다.

그러나 MAI의 내용에 대해 국가간의 이견이 존재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간의 대립으로 MAI가 사실상 폐기되어 MFI(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가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MAI의 체결 실패로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체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첫째 투자의 범위를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외국자본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협정체결국의 투자자에게는 투자유치국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투자협정도 다자간투자협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투자자유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III.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요인

초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sup>3)</sup>를 확대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기업의 성장은 원자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국적기업들에게 값싼 원료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원료구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고용과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의 초기투자는 광물자원과 농산물과 같은 원료에 집중되었다(Cox, 1976: 345). 1차대전 기간중에는 무기생산의 필요성으로 인해 광물자원과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미국은 남미의 최대자본투자국으로 등장했다.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남미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석유와 광물자원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차대전후 남미는 선진국의 해외투자를 통해 최대원자재공급시장이 되었다. 또한 석유위기는 남미의 자원부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증대시켰다. 선진국의 대외경제원조는 남미의 주요 광물자원의 개발권을 얻는 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었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이익과 합치된다고 판단할 때 미국에 부족한 원자재와의 교환으로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의 대외원조는 저발전국이면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원조수혜국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의 확보가 목표였다.

둘째, 초국적기업들의 투자는 자국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된다. 초국적기업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일 수 있다. 시장과 값싼 노동력의 공급지라는 측면에서 직접투자의 대상으로서 개도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개도국도 원료공급에서 탈피하여 공업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은 분업적으로 통합되었다. 이전까지 초국적기업들이 이윤보장에 대한 위험부담, 통제의 한계, 그리고 투자경쟁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 및 통신의 비약적 발전과 초국적기업들 간 경쟁의 출현과 같이 투자조건이 변화되었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군부정권의 수립은 초국적기업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Evans, 1979: 43-49).

개도국의 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자본비용이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은 개도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주목하여 노동집약적 생산을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Gill and Law, 1988: 216).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자동차기업들은 생산설비의 일부를 비교적 노동력이 싼 멕시코로 이전했다. 저임금 이외에 생산설비를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요인은

3)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단순히 배당 및 이자 등 자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투자가가 해외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의 노동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길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도국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과 힘이 약하거나 노동조합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에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고용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초기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초국적기업의 자원추출형 투자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사양산업을 개도국에 이양하는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규제나 노사관리 등으로 국내투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우위만으로는 투자요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대상국이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보유한 경우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 졌다. 즉, 초국적기업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다(Wells, 1970: 104). 이와같이 상이한 생산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투자형태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다.

<표 1> 초국적기업의 제조업투자

산업부문	50대 기업 포함 기업 수		50대 기업 중 비율(%)		비율증감 1955-75
	1955	1975	1955	1975	
석유	11	17	27	46	+19
전기	3	7	6	12	+ 6
화학	3	7	5	9	+ 4
철강	6	5	10	6	- 4
자동차/타이어	9	10	30	21	- 9
항공	5	---	4	---	- 4
소비재	9	4	15	6	- 9

\*자료: George Modelski,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Order*. Sanfrancisco: Freeman. 51. Gill and Law(1988: 193)에서 재인용.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국제분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형태이다. 최근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점차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은 모회사에 집중되고 디자인, 조립 및 가공과 같은 생산공정은 다수의 자회사로 분산된다. 이러한 노동의 국제분업은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숙련제조, 미숙련 조립으로 구분될 수 있다(안승국, 1999: 97). 따라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개도국에서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부문의 성장을 억제하고 초국적기업의 하청기지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Evans, 1972: 338)

이와는 달리 유사한 생산기지를 여러 국가에 설치하는 것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oreign Direct Investment)이다. 그리고 수평적 투자는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기업과 유사하다. 수평적 투자는 신속한 현지수요대응, 수송비 절감, 무역장벽 회피 등의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자형태는 첫째 현지생산이 운송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경우, 둘째 제품생산을 현지시장의 선호에 부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현지생산이 시장경쟁에 유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자유무역이 제약받는 경우 무역장벽의 회피나 미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대응의 수단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이 유럽 및 미국과 자동차 수출에 대해 수출자율규제협약을 체결한 후 유럽과 미국내의 자동차 현지생산을 증가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수입규제의 제약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수입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관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그러한 제도하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경쟁력을 지니지 못하고 오직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기 쉽다. 한편 이러한 높은 관세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유치국은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여 해외자본을 수출위주의 생산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입규제 제도가 관세환급제도보다 더 강한 유인책이 된다.

셋째, 초국적기업은 기술이나 브랜드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여 조직 및 경영기법, 판매망 등 현지기업보다 유리한 경쟁우위 요소를 활용하여 현지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즉,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자국내에서의 독점적인 생산이나 수출보다는 투자국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입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제3의 물결이라는 민주화의 확산으로 그 동안 투자안정성을 보장해주던 군부정권이 붕괴하면서 초국적기업들은 WTO, MAI, 양자간투자협정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초국적기업이 개도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소비되지만 초국적기업들은 개도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장을 고려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생산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초국적기업은 개도국에 생산설비를 세움으로써 수입장벽을 피할 수 있고 본국에서와 같이 대기업으로서의 독점적 특혜를 누릴 수 있다(Cox, 1976: 346). 다시 말해서 초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본투자대상으로서 가치도 있다.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이 남미에서 획득한 수익액은 개도국에서의 전체이익 중 50%를 초과한다. 1970년대 중반 석유험기 이후 이른바 오일달러가 유입되면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미국의 상위 12개 은행의 수익 대부분이 남미에 대한 차관에서 획득되었다. 이전

에 비해 개도국들이 선진국정부나 초국적기업과의 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수입쿼터의 감소, 차관제한, 기술이전금지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교섭능력은 제약된다. 개도국들은 교섭을 통해 초국적기업들과 부품, 반제품, 완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여 재수출한다는 것에 합의의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 대한 기술이전, 교역의 증대, 고용의 창출, 경제성장의 촉진, 국제분업체제로의 통합과 같은 장점이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외투자유입으로 인한 국제수지결손, 투자대상국의 시장점유, 투자대상국의 경제관리능력 약화, 투자대상국의 성장억제와 같은 문제가 초래된다. 즉 초기에는 투자의 유입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국적기업의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과 과실송금<sup>4)</sup>으로 결국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기업들은 현지기업들보다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시장을 신속하게 점유할 수 있다. 투자국정부는 초국적기업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유치국의 경제정책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경제관리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Vernon, 1978: 124). 특히 초국적소유는 특정산업부문을 수직적 통합에 놓이게 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통제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Kobrin, 1980: 7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초국적기업은 국내기업들과 상호보완적이라기 보다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생산투입요소를 감소시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Sunkel, 1972: 525).

#### IV.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자본집중

세계 각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연평균 600억 달러였던 것이 1991년 1,580억 달러, 1995년 3,150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OECD국가의 직접투자 유출입 규모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1996년에는 투자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총투자금액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였다. 이와같이 활발한 투자는 세계화에 따라 자본이동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간 기업의 인수·합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세계 해외직접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이다. 최근 각국에서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통신 및 항공분야의 기업간 합병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4)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조작은 본사와 지사간 실무거래를 통해 이루어 진다. 즉 본사가 해외지사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자사가 본사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전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자금을 본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표 2> 주요 선진국의 직접투자현황 1970-1996      단위 : 백만달러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미국	7,589	14,217	21,898	15,236	33,437	95,509	88,304
영국	1,310	2,968	11,379	11,206	----	42,676	43,717
독일	873	2,015	4,177	4,934	22,329	38,573	27,883
프랑스	373	1,335	3,100	2,201	24,184	10,694	17,734
일본	355	1,760	2,394	6,427	48,024	22,628	23,468

자료: United Nations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1988.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World Development: Trends and Prospects*. New York: United Nations.OECD, 1997.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 Book*.

특히 민영화는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민영화에 의해 촉발된 해외투자는 880억 달러였고 그중 680억 달러가 OECD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이었다. 특히 일부 OECD국가와 다수의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매각정책이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초국적기업은 자본자유화가 확대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70년대 후반 수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80년대 전반의 외채위기와 경기침체에 의해 잠시 둔화되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80년대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미국·E C·일본 등 선진국의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선진국의 초국적기업들은 80년대의 세계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투자보다도 해외직접투자에 중점을 두으로써 범세계적 생산체제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자본의 이동이 진행되면서 1990년대 들어와 초국적기업들의 해외매출은 급속히 증대되었다.

최근 초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존의 신흥공업국 투자에서 미국, EU, 일본의 이른바 ‘3국’간 내부투자가 증가하였고 투자부문도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세계화시대에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초국적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선진국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제휴와 기술이전 협정에 있어서 90% 이상이 미국-유럽-일본간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3국-신흥공업국, 그리고 3국-개도국간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현재의 초국적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약은 동등한 규모와 지위에 있고 대체로 상호보완적 자산을 지닌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초국적기업들은 첨단산업부문에 기술교류의 수단으로서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sup>5)</sup>를 형성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장점은 기술이전 효과, 연구개발비용의 분담, 세계시장 점유, 위험부담의 감소, 경쟁기업에 대한 우위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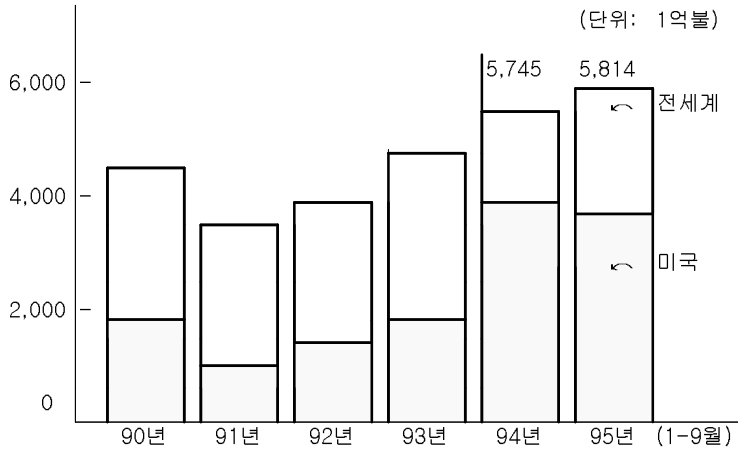
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들은 선진국의 초국적기업들만 획득하고 개도국의 기업들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개도국 정부의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는 개도국 기업을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제휴의 3극간 내부화 경향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불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3극간 내부투자 이외에 자본집중을 초래하는 것은 초국적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초국적 인수·합병이다. 사업 다각화가 사업부문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초국적 인수·합병은 외형확대를 추구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국적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구하는 첫번째 요인은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적과 자본의 확대경향이다. 두번째 요인은 전통산업부문과 첨단산업부문을 구분시키는 급속한 기술변화이다. 세 번째 요인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세계적 차원에서 기업의 거대화과 독점화 추세이다. 결국 초국적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는 한 산업부문으로부터 다른 산업부문으로 이동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에 의해 강화된다. 초국적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투자업종에 진출하며 고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확대의 조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인수·합병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995년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15%가 신규 기업설립이었던 반면 85%는 기업인수였다. 또한 1996년에는 300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기업합병이 발생하였다. 인수·합병의 대부분은 특히 유망사업부문과 우량주식 보유기업에 집중된다. 1990년대 인수·합병의 급속한 성장은 무역 및 투자정책의 자유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유기적 통합에 기인된다. 즉, 초국적기업은 국내기업의 독점이 붕괴되면서 시장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이 발생하는 것은 해외시장이 차별화되어 있고 해외시장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5) 전략적 제휴란 국적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초국적기업이 시장점유 확대, 기술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이들 기업이 지닌 경영자원의 일부를 상호교환하거나 상호투자를 통해 기업소유 자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전세계 기업 인수·합병 현황



자료: 매일경제신문, 1995. 10월 16일.

이러한 전세계적인 인수·합병의 추세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교류, 표준화 규격의 선점, 투자위험의 분산과 막대한 투자분담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기업들은 브랜드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초국적기업들에 자발적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기업간 인수·합병은 초국적기업간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기업규모를 확대시켜 안정된 토대를 구축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즉, 초국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범세계적 차원에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3극간 내부투자, 사업부문 다각화, 초국적인수, 합병에 따른 자본집중은 초국적기업의 전세계적인 시장점유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첨단 제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느냐의 문제는 세계자본주의의 전화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부문에서의 점유율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컴퓨터부문에 있어서 약 80%,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약 50%, 반도체 분야에서 약 3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이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통산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첨단산업부문에서도 자본의 집중화와 독점화가 초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기업의 지역간부문간 신속한 이동은 기업간·산업간·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세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V. 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사례

최근 외국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은 우호적인 것으로 구조조정 중인 기업, 유통망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기업, 독과점사업으로 확고한 영업기반을 가진 기업 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신기법을 동원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 투자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기업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내 현실에서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이저와 듀라셀과 같은 초국적 건전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초국적 건전지기업들은 1996년 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과 판촉을 강화하였다. 즉, 이들 기업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점에 국내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점들을 장악하였다. 지난 96년에는 국내 유통망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듀라셀이 서통상사 상표권과 판매사업부를 인수했다. 듀라셀은 지난해 국내시장의 30% 가량을 점유해 온 서통의 썬파워브랜드 및 판매망을 인수하여 국내 1차전지시장에서의 외국제품 점유율은 60%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듀라셀코리아는 판촉기획상품으로 썬파워브랜드 제품과 듀라셀브랜드 제품을 함께 패키징, 저가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국내시장을 폭넓게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인수한 썬파워브랜드 제품은 저가로 판매하고 듀라셀 브랜드 제품은 국산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중가격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벨기에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썬파워브랜드로 들여와 낮은 가격에 유통점에 공급했다.

국내시장의 2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에너지이저 코리아도 홍보와 판촉을 강화했다.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제품 구입시 판촉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더욱 상승시켰다. 질레트 계열의 듀라셀, 에너지이저와 에버레디라는 상표로 알려진 랄스톤 퓨리나는 소형 전지분야에서, 엑사이드는 자동차용 전지분야에서 각각 미국을 대표하는 빅3이다. 이들 미국 빅3의 매출규모는 각기 2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초국적담배기업들도 선진국 시장의 쇠퇴에 직면함에 따라 아시아와 동구, 러시아로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정책과 산업관행에 있어서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미국 담배기업들의 외국시장확대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서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R.J. Reynolds(RJR)는 지난 5년간 해외매출이 급격히 신장되었다(Weissman and Hammond, 1998).

2차대전 이후부터 필립모리스와 RJR과 같은 초국적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왔다. 지난 1980년대 미국 무역대표부는 담배기업들과 손잡고 무역제재 위협을 통해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시장을 개방시켰다. 미국은 WTO가입을 조건으로 담배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국의 담배기업들은 금연운동에 영향받아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담배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매출성장에 힘입어 이전 보다 더 많은 수익을 획득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은 미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담배수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자유무역과 경제적 공정성이다(Frankel, 1996). 국내에서 담배판매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조차도 해외에서의 담배수출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담배기업들의 판매 뿐만 아니라 광고와 판촉, 행사지원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국 미국정부는 담배기업들의 국내시장 축소를 외국시장 진출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초국적담배기업들의 마케팅전략 중 일부를 미국 내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초국적담배기업들의 외국에서의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초국적담배기업들의 마케팅전략으로 인해 외국시장의 속성자체가 변화되었다. 즉, 초국적담배기업들은 운동경기나 음악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광고제약을 피하면서 간접홍보를 하는 판매촉진전략으로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던 것이다.

아시아의 담배시장이 개방되고 초국적담배기업들이 가격경쟁과 광고홍보를 통해 시장점유를 확대한 결과 흡연율이 평균 10%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1988년 초국적담배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10대 남성 흡연율이 18.4%에서 29.8%로 증가했으며 10대 여성흡연율이 1.6%에서 8.7%로 급증했다.

미국담배기업들은 1994년까지 거의 법적 규제나 제약을 받지 않았다. 1994년 식품의약청(FDA)는 미성년을 겨냥한 광고와 마케팅에 제약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외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국적기업들은 외국에서의 판매전략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지금까지 초국적담배기업들을 통제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미 의회는 담배의 해외판매를 촉진하거나 담배시장에 대한 외국의 무차별장벽을 제거하는데 국무부와 상무부가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깃(Dogget) 법안을 가결시켰다. 1998년 초까지만 해도 클린턴행정부는 미대사관에 도깃법안의 이행을 지시했다. 그러나 최근 태국정부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압력을 보면 도깃법안의 준수가 의문시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담배기업들은 신흥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필립 모리스, R.J. 레이놀즈, 브라운 앤 윌리엄슨의 이른바 3대기업은 미국담배수출협회(U.S Cigarette Export Association, CEA)을 결성하고 시장진출을 시도했다(Frankel, 1996). 그러나 1980년대 초 아시아시장은 폐쇄적이었으며 아시아국

가들은 정부통제하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국가에서는 외국담배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외국담배의 구매와 판매는 불법이었다. 아시아국가들은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외국산담배의 수입금지를 정당화시켜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아시아국가의 담배광고 제약을 외국담배에 대한 차별조치로 인식했다. 1985년 9월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담배판매의 제약했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해 301조를 적용했다. 이후 일본의 담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초국적담배기업들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수입담배는 일본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여 7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다. 일본에 이어 초국적담배기업들은 17억달러 규모의 담배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한국정부는 301조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에 담배광고를 공식적으로 불법화시켰는데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광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8년 미국담배기업들은 한국을 301조로 제소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RJR은 한국정부에 대한 로비를 위해 레이건행정부의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알렌(Richard Allen)을 고용했으며 필립모리스도 전 백악관보좌관이었던 디버(Michael Deaver)를 고용했다(Frankel, 1996). 한국은 미국의 요구<sup>6)</sup>를 3개월만에 수용함으로써 301조 조사는 종결되었고 1988년 7월 한국의 담배시장은 개방되었다. 미국정부의 개입으로 미국담배기업들의 판매는 600%이상 증가했다. 시장진출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광고와 후원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 다음으로 미국정부의 무역제재 위협을 통해 시장을 개방시키고 가격경쟁을 통해 시장점유를 확대했다.

클린턴행정부는 초국적담배기업들에게 유리한 투자조건을 마련해줄 MAI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MAI하에서 투자자들은 기대이익을 실현할 권리를 갖게된다. 즉, GATT는 정부차원에서 강제되었지만 MAI는 기업에 의해서도 강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AI를 거부한 정부에 대해서 기업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MAI하에서 금연운동과 같은 공중보건캠페인은 불법화되기 때문에 담배광고금지조치는 외국담배기업들에 대한 차별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초국적담배기업들은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클린턴행정부는 중국과 WTO가입을 협상하면서 담배를 포함한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시장개방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해 달라는 중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초국적담배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6) 미국정부는 한국의 담배시장 개방을 위해 첫째 민간기업의 외국산담배 수입 판매 허용, 둘째 외국산 담배 판매가격의 국산담배 수준 인하와 소비세의 동일적용, 셋째 담배 광고 및 관측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넷째 외국담배소유 금지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Korea Times, May 4).



추진하였다.

## VI. 결 론

세계화와 더불어 초국적기업은 세계자본주의의 실질적 주체로 부상했다. 선진국의 통제에 놓여 있는 초국적기업들은 투자 및 시장의 독점을 통해 국가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다른 국가들에게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국적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투자대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선진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의 실질적 의미는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생산보다는 초국적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인 것이다.

미국, EU, 일본의 초국적기업들은 국제분업체제의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생산기지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구도에는 초국적기업들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선진국들은 자본의 초국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형은 지역통합과 동시에 세계화를 추진하는 초국적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과 유럽의 초국적기업들이 규모와 수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의 초국적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구도속에서 미국은 상품 및 자본 이동의 자유방임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이나 개도국들은 초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첫째 정관개정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인수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인수때 기존 경영진 또는 종업원에게 거액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피인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경영진이나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경과후 주식을 낮은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초국적기업들의 자본집중화와 기술독점화가 심화되면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외형상 선진국의 산업구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 이외에는 진출할 산업부문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기초과학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첨단산업기술은 선진국의 초국적기업

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자, 기계, 자동차 산업부문에서 제품차별화, 부품 국산화, 생산공정의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형 산업내 분업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생명공학, 신소재,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을 기반으로 한국도 적절한 투자대상지역을 선택하여 해외투자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lt;정기간행물 및 통계자료&gt;

매일경제신문.

Korea Times.

OECD. 1997.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 Book*.

United Nations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1988.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World Development: Trends and Prospects*. New York: UnitedNations.

## &lt;논문 및 단행본&gt;

안승국. 1998.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지형변화에 관한 국제정치경제적 재조명: 2차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안승국. 1999. “한국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에 관한 정치경제적 재성찰”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안승국·임혜란. 1999.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축적 :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와 생산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8권3호.

이상환. 1995. “미국과 동북아 3국간의 무역분쟁 : 패권안정이론과 잉여능력 이론의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5집1호.

Cox, Robert W. 1976.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Foreign Affairs*, Vol. 54 No. 2.

Evans, Peter B. 1972. “National Aut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Critical Perspectives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Poor Countries” In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Evans, Peter B.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arten, Jeffrey E. 1995. “Is America Abandoning Multilateral Trad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Gill, Stephen and David Law. 1988.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Problems and Poli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ass, Richard N. and Robert E. Litan.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avigating the Dangers of a Tangled World" *Foreign Affairs*, (May/June).
- Kobrin, Stephen J. 1980. "Foreign enterprise and forced divestment in LD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4 No. 1.
-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ero, Joan E. 1989. "Guiding Global Finance" *Foreign Policy*(Winter).
- Sunkel, Osvaldo. 1972. "Big Business and 'Dependencia': A Latin American View" *Foreign Affairs*, Vol. 50 No. 3
- Vernon, Raymond. 1978. "The Multinational: No Strings Attached" *Foreign Policy*, No. 33.
- Wells, Louis T. Jr. 1972. "The Multinational Business Enterprise: What Kin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arket  
Acces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Focusing on the Political Economic Factors of  
Strategic Change**

**Ahn, Seung-Goo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real meaning of globalization is not producing public goods based on interdependence for common interest but restructuring political economic order for the maximiz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of advanced countri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panded investment in foreign countries and market access to pursue monopolistic excess profit.

That is, transnational Corporations of U.S., EU, and Japan are pursuing a regional division to secure production bases and markets. And then there are competitions among transnational corporation in the configuration of globalization. Thus advanced countries are promoting a trans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building their own spheres with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is Context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creased the level of pressure of M & A for profitable sectors like tobacco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us Korea is needed to prepare for differential M & A. First of all, it should be made a procedure of M & A difficult through revision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Second, it should be built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big investors. Third, it should take advantage of stock-option for employee.